



#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NEWS LETTER

November of 2023 Vol.56

소식지

## 의과대학

발행인 김승후 편집인 도경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s://medulsan.ac.kr> 소식지 홈페이지 <https://medulsan.ac.kr/eletter>



02 [Interview] 2023년 2학기 신규 교원 11명 임용 04 [의대소식]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학) 송영기 교수, 발전기금 쾌척 05 [기획기사] 우리 의대 연구 성과 최상위권 유지 중 … 다양한 연구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09 [학생기자가 간다] 대중과 소통하는 의사 친구, '닥터프렌즈' 우창윤 교수 12 [학생기자가 간다] 우리 의대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 대표적 활동 16 [졸업생인터뷰] 미국으로 활동무대 옮기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 필요…사전 준비 시 더 좋은 성과도 가능 19 [건강칼럼] 장내미생물의 불균형: Dysbiosis 개념부터 치료까지 20 [의대소식] 박덕우 · 김남국 교수 제2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20 [의대소식] 2023학년도 의과대학 발전세미나 개최 21 [기고] 2024년 임상 실습 과정의 주요 변화

# 2023년 2학기 신규 교원 11명 임용

## 소감 및 우리 의대 발전 방향은?

우리 의대가 2023학년도 2학기를 맞아 신임교원으로 서울아산병원 4명, 울산대학교병원 4명, 강릉아산병원 2명, 본교 1명 등 총 11명을 임용하였다.

이에 이번에 임용된 교원들을 통하여 신규 임용 소감 및 우리 의대 발전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유재석 (서울아산병원) 부교수**

###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저는 부천세종병원에서 6년 반 동안 심장 수술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노하우, 의학적 지식들을 실질적으로 향후 수술을 하게 될 후배들과 공유하고 교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아산병원에 돌아오면서 가진 가장 큰 꿈은 후학 양성과 교육입니다. 그동안 느꼈던 점들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공의, 전임의 뿐 아니라 학생 교육을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의대생들은 정말 말그대로 '공부밖에 모를'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어색하고 서툰 학생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사는 결국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돋는 일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과 못지 않게 인성을 갖추고 다양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본인의 개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의사를 길러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자전거와 등산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주로 주말에 어린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출근하여 회진을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말 루틴으로 해서 육아와 운동, 주말 회진을 병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육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죽을 (나빠질) 환자도 주치의가 붙어서 열심히 보면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다면?

20대 후반에 한달 간 유럽 여행을 할 때 갔던 미코노스 섬을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로 꼽습니다.

보통 광고나 영화 등에서는 산토리니 섬이 주로 많이 나와 익숙하지만 미코노스는 아주 많이 알려지진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마을인 미코노스 섬은 매우 아름답고 특히 석양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아테네로 넘어가는 배 안에서 만났던 한 미



국인 노신사와의 추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8시간이나 걸리는 배를 타고 하룻밤을 꼬박 보내는 여정인데, 갑판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선상 카페에서 그분이 저에게 그리스식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보통의 커피와는 달리 미세한 커피 가루가 채 걸려지지 않고 걸죽하게 섞인 그런 스타일의 처음 경험하는 커피였는데, 그분이 제게 커피를 사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 first Greek coffee will be my treat.” 누군가에게 무언가 ‘처음의 경험’을 선물한다는 것이 매우 고맙고 인상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처음’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학생들이 저를 통해 어떤 ‘처음’의 경험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교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  
최수진 (울산대학교병원) 조교수

**Q. 교수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울산의대 신임교원으로 임용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의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저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자로서 류마티스 영역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가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업무나 학업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도 관리합니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류마티스는 만성질환이 많다 보니, 환자들이 질환에서 유발되

는 불편함으로 인해 평소에 일상적인 행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질병을 잘 조절하여 환자가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본인의 계획대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Q.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의학 지식에 있어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중에 졸업하더라도 전문가로서 평생 학습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발전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책임감은 현장에서 선배 의사, 환자와의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면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다면?**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대의 여러 교수님 및 학생들은 이미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대가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국내 최고의 의대로서 더욱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의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연구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UNIST와의 의과학자 커리큘럼과 같이 의공학,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참여나 적극적인 국내/해외 학회 참석, 토론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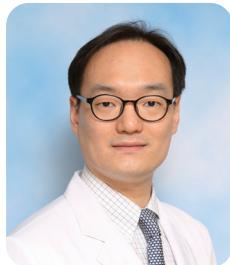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임용 자격을 갖추는 과정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과연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목

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 (노하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 동기를 이끌어 내서 지치지 않고 매일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대의 교수를 희망하는 분들이시라면 능력은 충분히 훌륭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면 그 길이 다소 돌아서 가거나 고단하더라도 언젠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외과학교실  
김민수 (강릉아산병원) 부교수**

**Q. 교수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훌륭한 학교의 일원이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 역할을 하는 일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연구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하나씩 꾸준히 내고 싶습니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치우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각자의 생각에 따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Q.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학생들과 만나는 일은 늘 두렵게 생각하겠습니다. 무심결에 보이는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생활하겠습니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훌륭한 시스템과 열정적인 구성원을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연구, 진료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뇌신경기능장애, 수술중신경생리감시, 운동장애 분야 등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많이 대화하고 같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의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학교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고의 병원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신뢰하고 또 자극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Q. 기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학교에 임용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그 시작점에 서 있을 뿐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소식

##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학) 송영기 교수, 발전기금 쾌척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학) 송영기 교수가 발전기금 1억원을 지난 2020년 2월 약정하였다.

이 발전기금은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학: 김원배, 김태용, 김원구, 전민지 교수) 연구기금으로 갑상선 질환 연구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기금은 갑상선 질환의 연구로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송영기 교수 본인의 퇴직 (2023년 8월 31일) 시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퇴직 후 그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받아, 연구비처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우리 의대 연구 성과 최상위권 유지 중… 다양한 연구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JCR분야별 상위 10% 이상 논문 증가

우리 의대 연구 성과가 여전히 국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2년 발표된 SCIE 등재 논문… 총 2,219편

우리 의대에서 발표된 SCIE 등재 논문 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 추이를 보면 2018년 1,910건에서 2022년 2,219건으로 연 평균 1.4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은 2021년보다 증가세가 주춤한 편이지만 이는 코로나 19 관련 논문이 2021년 대거 출판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 IF 20 이상 우수 저널 발표 최상위권

Impact factor (IF) 20 이상의 우수 저널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년간 10편 이상을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 의과대학과 실적 비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5년간 JCR분야별 상위 10% 논문은?

우리 의대의 최근 5년간 (2017~2021년) JCR분야별 상위 10%에 해당되는 우수한 논문들의 발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논문 중 11% 이상이며, 국내 최우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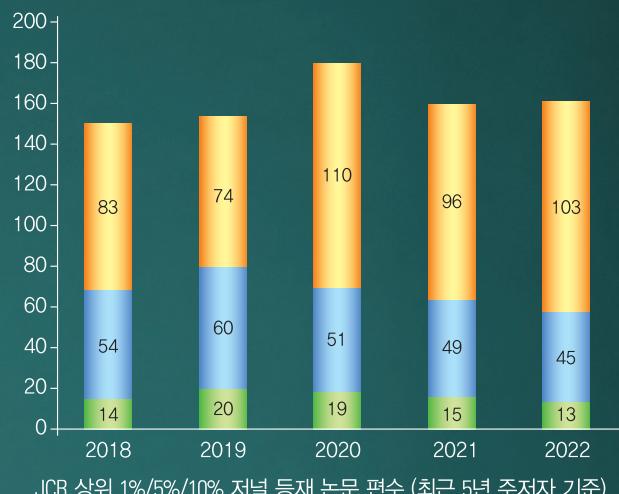


표 1. 우리 의대 학술 성과 요약, 주저자 기준

지표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표 논문 수	1,285	1,350	1,484	1,736	1,451	1,461
총 피인용 횟수	22,913	18,502	15,797	9,324	2,849	13,877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17.83	13.71	10.64	5.37	1.96	9.50
IF 합계	5,873	6,411	6,948	7,810	6,535	6,715

표 2. 주요 의대 학술 성과 요약 (2018~2022)

기관	JCR 분야별 상위 1% 논문 수 (%)	JCR 분야별 상위 3% 논문 수 (%)	JCR 분야별 상위 5% 논문 수 (%)	JCR 분야별 상위 10% 논문 수 (%)
울산의대	81 (1.11)	221 (3.02)	340 (4.65)	806 (11.03)
A의대	124 (0.98)	373 (2.95)	653 (5.16)	1,496 (11.82)
B의대	39 (0.57)	175 (2.57)	294 (4.31)	740 (10.85)
C의대	68 (0.75)	268 (2.96)	445 (4.92)	1,040 (11.49)
D의대	19 (0.31)	62 (1.01)	171 (2.79)	400 (6.53)
E의대	16 (0.37)	68 (1.56)	122 (2.80)	362 (8.30)

### 최우수 연구와 논문 발표 독려 정책 추진

우리 의대에서는 최우수 연구와 논문 발표를 독려하기 위해 ▲ 우수 논문에 대해 교수업적 점수 상향 조정, ▲논문게재 장려금 차등 지급, ▲매년 연구 우수 교수상 시상, ▲대내외 각종 의학 상에 연구 우수 교수 적극 추천 ▲의대 신진 교수 시드 연구비

지원, ▲UNIST와 공동 연구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재광 연구부학장은 “앞으로도 우리 의대 교수님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의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관별 – IF20이상 논문현황(연도별 누적 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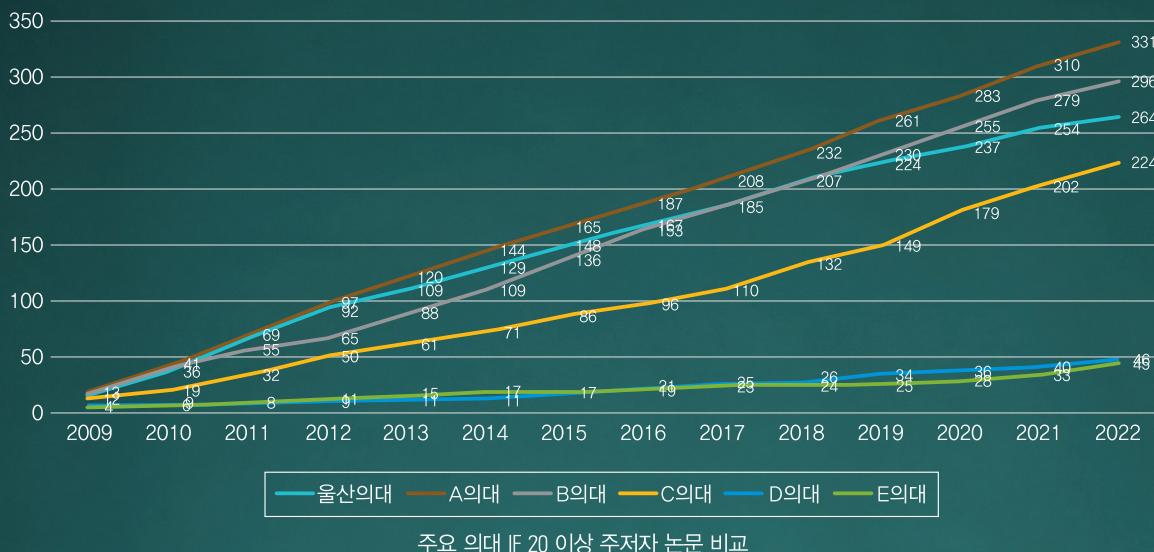


표 3. 2022년 IF 상위 10개 논문 list

제 목	저널	IF 점수	주저자
Nivolumab plus chemotherapy versus placebo plus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HER2-negative, untreated, unresectable advanced or recurrent gastric or gastro-oesophageal junction cancer (ATTRACTON-4): a randomised, multicentre,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LANCET ONCOLOGY	54.433	내과학교실: 강윤구
Edoxaban Versus Dual Antiplatelet Therapy for Leaflet Thrombosis and Cerebral Thromboembolism After TAVR: The ADAPT-TAVR Randomized Clinical Trial	CIRCULATION	39.922	내과학교실: 박덕우, 박승정
Everolimus-Eluting Stents or Bypass Surgery for 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 Extended Follow-Up Outcomes of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BEST Trial			내과학교실: 안정민, 강도윤, 박덕우, 박승정
A liquid biopsy signature predicts treatment response to fluoropyrimidine plus platinum therapy in patients with metastatic or unresectable gastric cancer: implications for precision oncology	MOLECULAR CANCER	37.3	외과학교실: 이인섭
An Exosome-based Transcriptomic Signature for Noninvasive, Early Detection of Patients With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A Multicenter Cohort Study	GASTROENTEROLOGY	29.4	외과학교실: 김송철
Response Rate and Safety of a Neoadjuvant Pertuzumab, Atezolizumab, Docetaxel, and Trastuzumab Regimen for Patients With ERBB2-Positive Stage II/III Breast Cancer The Neo-PATH Phase 2 Non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ONCOLOGY	33.01	내과학교실: 정경해
Methodological challenges of performing meta-analyses to compare the risk of hepatocellular carcinoma between chronic hepatitis B treatments	JOURNAL OF HEPATOLOGY	30.083	내과학교실: 최원묵
Impact of HBsAg seroclearance on late recurrence of hepatitis B virus-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surgical resection			내과학교실: 최종기
Prognostic Impact of Mildly Impaired Renal Function in Patients Undergoing Multivessel Coronary Revascular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27.206	내과학교실: 김태오, 박덕우
Routine Functional Testing or Standard Care in High-Risk Patients after PCI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76.082	내과학교실: 박덕우, 강도윤, 박승정

2022년 IF 상위 10개 논문 주요 저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니인터뷰]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최종기 (서울아산병원) 교수



#### Q. 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연구 특히 의학연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임상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은 연구 주제부터 시작한다면 결코 의학연구의 문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요한 것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학생 때부터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임상 의사의 경우 주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혹은 전임의 과정에서 이러한 임상연구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한창 바쁠 시기인 전공의, 전임의 시기에는 충분한 연구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지 못한 채 바로 연구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생 때부터 추후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 기초 지식 및 실력을 배양하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찍 연구에 노출될 경험을 얻게 된다면, 훌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뗀다고 볼 수 있겠다.

#### Q.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와 좋은 저널에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가 있다면?

대부분 훌륭한 연구자들의 이야기나 소감 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꾸준히 열심히 하였는데, 운이 좋게 좋은 저널에 등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동감한다.

연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번 연구는 어떤 저널에 등재를 목표로 한다”라는 다짐보다는 이번 연구는 이런 가설하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가설을 증명해봐야겠다는 연구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연구 설계당시 생각했던 가설이 충분히 내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자기 스스로 성찰한다면 다음에는 더 우수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 역시 글쓰기이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왕도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아무리 연구 결과가 훌륭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기술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것 역시 개인의 연구 역량이라 생각한다.

좀 더 나은 글쓰기 (논문)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 대표 저널에 실린 훌륭한 논문들을 자주 읽고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초고를 작성 후 영문 교정을 맡긴 다음 원어민에게서 오는 피드백을 잘 수용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빠른 실력향상의 지름길로 생각된다.

#### Q. 의대생이 연구와 관련해 학생시절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역학, 의학통계, 데이터핸들링, 각종 오피스 프로그램 등을 잘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들은 의학 연구 특히 임상연구를 훌륭히 수행하고 기술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므로, 학생때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두면 좀 더 일찍 수월하게 연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Q. 연구와 관련해 의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하는 방향과 비슷하게 젊은 연구자가 점점 감소하고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경우 현실적인 급여 및 대우, 살인적인 업무량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점점 연구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와 QOL (Quality of Life)을 고려하여 연구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고 있다.

연구자로서 신성한 (?) 연구의 동기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의 기회와 현실적인 급여 및 처우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의대에서 시작한 연구 인센티브 제한 제도는 젊은 연구자의 날개를 꺾이게 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마치 연구 인센티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의대교수가 인센티브를 보고 연구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젊은 세대 출산율 감소 정책을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현실적인 급여 및 처우 개선 없이는 젊은 연구자의 감소로 조만간 연구역량의 심각한 감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지원 소스가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연공서열이 아닌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아이디어와 훌륭한 연구계획이 있다면 직위에 해당하는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미니인터뷰] 외과학교실 (위장관외과) 이인섭 (서울아산병원) 교수



#### Q. 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의과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임상의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임상의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가장 적합한 최신 치료법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임상연구이다.

아무리 진료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단순히 “내가 해봤더니 이 치료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 근거수준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한다.

내가 생각하는 치료법이 환자에게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 우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를 통해서야 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해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전 임상분야에 걸쳐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등이 수술분야에서도 점점 더 비중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진단과 치료의 표준체계 부족함 즉 unmet need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보충하는 것도 임상의로서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 Q.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와 좋은 저널에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상적인 unmet need를 파악하고 주제로 삼을 수 있느냐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얼마나 탄탄하게 설계했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면서 독창적인 ideation을 더할 수 있다면 좋은 저널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많은 논문들을 검색하고 동일 주제를 다룬 연구가 있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 생각한 주제와 연구 종류에 맞춰 big data 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ranslational research with multiple independent validation 등 결과를 설득력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한다면 좋은 저널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Q. 의대생이 연구와 관련해 학생시절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학생 때부터 의무적으로 연구를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어떤 연구나 논문을 살펴볼 때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기존의 임상진료 및 치료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러한 내용들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근거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며 의문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Q. 연구와 관련해 의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에도 학생들이 임상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교수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의 문턱을 낮춰주시면 좋겠다.

더불어 의대 뿐만 아니라 병원공간과도 연관된 문제이지만, 좀 더 많은 중견 및 신규연구자들이 중개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 내 공간 및 설비의 확충이 늘어나길 희망한다.

# 대중과 소통하는 의사 친구, '닥터프렌즈' 우창윤 교수

## 병원 밖에서 유튜버로 활약하는 'N잡러' 의사의 삶

'의사' 하면 으레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진료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끌고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야말로 늘상 흔히 접해오던 의사의 이미지다.

하지만 최근 진료실과 병원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병원 밖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의사를 만나보았다. 바로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는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 우창윤 교수이다.

'닥터프렌즈'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전달하여 인기가 많은 의사 유튜브 채널이다. 각양각색의 전공을 가진 세 명의 의사가 대중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다양한 의학 정보를 재미있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의학드라마나 수술 게임 리뷰, 의학의 역사, 브이로그, 자체제작 진료 게임처럼 다채로운 의학 콘텐츠도 함께 선보이며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

현재 닥터프렌즈는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 명 이상, 총 조회수 수억 뷰 이상을 보유한 인기 채널로, 우리나라 의학 콘텐츠 대표 주자이다.

우창윤 교수를 통해 닥터프렌즈 채널, 크리에이터로서의 의사, 나아가 병원 밖에서의 다양한 의사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닥터프렌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채널의 탄생 비화

닥터프렌즈는 시청자들에게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의사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만든 채널이다.

소아과 의사인 친구에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것처럼 의사들끼리도 서로 궁금한 것을 자주 물어본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렇게 의사 친구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과 친구처럼 의사들이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의사 친구 한두 명 있는 것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또 다른 계기는, 의학 정보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이다. 우리 주변 의사들은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의학 정보를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콘텐츠건, 의학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큰 강점이 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이낙준 선생님은 웹소설을 쓰는데, 특별하지 않아보여도 의학적 요소가 포함되니 유니크한 글로 평가를 받는다.

나도 의학 칼럼을 쓰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나에게는 별거 아닌 정보가 다른 분야에서는 희귀하고 수요가 많은 글이 된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훨씬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료실에서 하는 일대일 상담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보고자 하였다.

촬영은 군의관 셋이 주말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놀면서 재미있게 촬영했다. 평소처럼 우리끼리 수다 떨고 노는데, 그걸 카메

라 앞에서 해보자 하며 편한 마음으로 촬영하였다.

그래서 많은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을 때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 Q. 닥터프렌즈 채널을 운영하며 어떤 점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의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학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미디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에만 집중한 정보들을 접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는 쉽게 믿어 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친구처럼 친근하게,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도 많아 보람을 많이 느낀다.

병원으로 가는 허들을 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한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심리적 장벽이 높은데, 우리 유튜브를 보고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고, 질환이 많이 좋아졌다는 댓글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 Q. 의사 유튜버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닥터프렌즈와 같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의사에게 도움이 될 조언

사실 크리에이터는 창작의 고통이 엄청나다. 그런데 의사처럼 고유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많이 가진 직업은 아이디어를 만드

는 데 드는 노력이 굉장히 적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필요 없이, 그냥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을 잘 캐치해 콘텐츠로 만들면 된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크리에이터를 생업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전문직은 병행할 수 있다. 자신의 본업, 본질과 맞닿아 있는 영상을 제작하면 두 가지를 함께 해 시너지가 낼 수도 있다.

크리에이터를 하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아는 게 너무 많으면, 환자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입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주로 하기 쉽다. 그러면 환자의 궁금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 어떤 환자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판단을 한다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 지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두루두루 느낄 수 있어야 한다.

**Q. 현재 닥터프렌즈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닥터프렌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원래는 “의학 콘텐츠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룹이 되어보자” 이런 게 내부적인 목표였다. 의학 콘텐츠의 스타터라고 하면 닥터프렌즈가 가장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고, 친근함과 퀄리티도 모두챙기고 싶었다. 이제는 이를 넘어 사람들에게 대중의학이라는 개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대중과학은 이미 굉장히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우주나 양자역학 같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그냥 재미있으니까 많이들 본다. 의학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다. 심지어 의학에는 삶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해 줄 것 같다.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의학을 배운다면 재미도 있고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대중들이 의학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N잡려’ 의사의 삶은?**

닥터프렌즈 채널은 2~3일마다 새 영상을 업로드한다. 좋은 뜻을 담은 즐거운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니 어느새 10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국내 최대 의학 유튜버가 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알아보는 환자나 보호자도 있다. 병동에서 사인이나 사진을 부탁받으면 쑥스럽지만,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을 환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느끼

시는 것 같아 다행이고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N잡려’ 의사의 삶은 어떨까? 특히 대학병원 의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를 만큼 바쁘다.

개인적인 취미를 갖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성공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 교수로부터 협업 의사 외 다른 직업을 가진 삶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의사로서의 본업, 유튜브, 콘텐츠 사업 등 여러 직업들 사이에서, 또 일과 휴식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지?**

사실 나보다 더 대단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아산병원에는 너무 많아서, 나는 그보다는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들 진짜 엄청나시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해야 하는 것도 많아진다. 교수, 아빠, 남편 등등. 그래서 나는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주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 우선순위를 둔다.

이를테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고, 이제는 의학과 관련된 다른 콘텐츠도 여럿 진행하고 있다. 대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안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거절하려고 한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시간을 만들고 있다.

또 나는 내 한계를 잘 안다. 오래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시간에 모든 일을 압축해서 한다. 그중에서도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꼭 마련한다.

중간중간의 다른 시간들도 내게 중요한 일 위주로 배분해서 최대한 하루를 꽉 채우도록 하고 있다.

대신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밤이나 이른 아침을 활용해서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꼭 운동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알아야만 계속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다.

**Q.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시대의 흐름에 앞서나가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외로 여러 분야를 고루 잘하는, 하이브리드 인재가 생각보다 드물다. 화두가 되는 것들에 내가 무언가 다른 걸 섞어서 나만의 색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나는 그게 무척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닥터프렌즈가 의사 채널 가운데서는 평균 조회수 등이 가장 높은 편이다.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학과 유튜브 콘텐츠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섞어 보았고, 두 가지 모두 나름대로 진심으로 했다.

다른 의사 채널도 많지만 우리는 조금 더 유튜브답게 하고 싶었다. 우리는 유튜브에도 진심이고, 의학에도 진심이니까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것에 꾸준히 관심을 두면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융합할까 고민하면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를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Q. 의학 외의 분야에서 색다른 적성을 찾아보고 싶은 의대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 보면 좋을지?**

의대의 좋은 점이 시험 끝나면 사실 할 게 많이 없다는 점이다. 학생 때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내 마음이 가고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많이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적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나의 적성으로 진지하게 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적성으로 일단 돈을 벌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컬럼을 쓰고 싶다면 의학 컬럼이 필요한 곳에 직접 컨택트를 해 보면 된다.

적은 돈이라도, 돈을 벌기 시작하고부터는 굉장히 다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돈을 받는다는 건 프로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분야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자기 길을 찾을 수 있고, 적성에 맞다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 **Q. 현재의 활동을 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학생 시절 경험이 있다면?**

특별한 경험은 없었고, 그저 친구들과 즐겁고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 외에는 스스로 연습하던 선택의 경험이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저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나의 선택일까?”를 되물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렸을 때 운 좋게 성적이 좋아서 내가 하는 선택들 대부분은 주변에서도 지지해주는 것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택인지, 내 스스로 정한 가치에 따르는 선택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생겼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뭐가 중요하지?”란 질문에 맞춰서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훈련들이 중요한 순간에 나다운 선택을 하도록 해 준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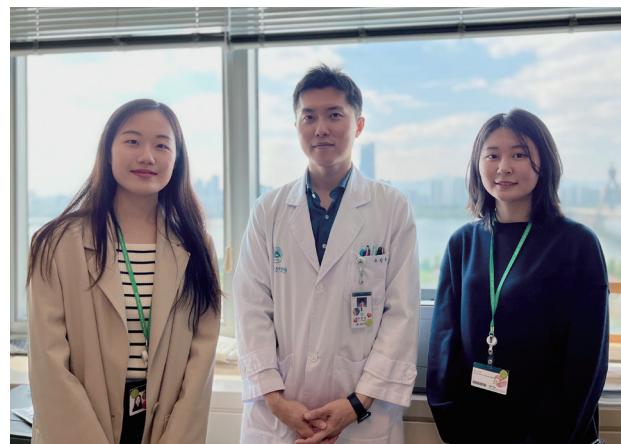
살아가다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자기다운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선택들 덕분에 지금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다.

#### **Q.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타인에게 친절하다는 건 무척 많은 것을 내포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신경 쓸 줄 알고,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소신이나 생각 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훨씬 많은 것들을 이루고 경험할 텐데, 그 바탕에 친절함이 있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성향이나 자세를 가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우창윤 교수님 인터뷰 사진 (왼쪽부터 황지원 학생기자, 우창윤 교수, 서다경 학생기자)

지금까지 의사는 환자를 진료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의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졌다.

의학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할 수도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돋는 의학 AI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미 다양한 적성을 살려 진료실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의사가 많다.

의학이 나만의 특별함을 만나면 그 자체로 참신한 이야기, 독창적인 가능성을 지닌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다 개성을 더해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와 연대할 수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열린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울산의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15페이지에 계속

# 우리 의대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 대표적 활동

## 해외 의료봉사 · 연수 후기

우리 의대 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배양하였다.

대표적으로 ▲세계의대생협회연합에서 운영하는 SCOPE(임상실습교환) / SCORE(연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는 경우, ▲각자의 노력을 통해 연수 기관을 찾아 연수를 받고 오는 경우,

▲병원 차원의 해외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우리 의대에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해외 연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연수장학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학생의학과장 면담을 한 후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되면 연수 직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강범규(의학과 1학년) 학생기자, 이은수(의학과 1학년) 학생기자가 방학 기간 중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경험을 들어보았다.



강범규 학생기자



이은수 학생기자

### 해외연수 후기

이번 방학 기간인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장상원(의학과 3학년) 학생을 통해 해외에서의 경험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해외연수 전

##### Q. 해외 연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에서 알려주셨을 때부터 관심이 생겼다.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건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찾을지였기 때문에 이후 계속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 Q.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기대했던 점은?

임상이 아니라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보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나 의대생들에게는 랩 실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의료인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다.

#### ▲해외연수 후

##### Q.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서 실제로 배운 점이나 힘들었던 점?

생각보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서 밀도

있게 연구 과정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몇 시간이나 며칠 단위로 걸리기도 해서 한 사이클에 3~7일 정도 소요되었고, 세 번의 사이클 정도를 볼 수 있었기에 더욱 밀도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특징도 전부 랩 연구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Q. 해외연수로 방문했던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연구 과정에 'Polydiacetylene(PDA) liposome microarrays for the detection of SARS-CoV-2 virus in saliva'를 주제로 직접 참여했다.

안제영 학생은 'Utilizing polydiacetylene and salt to create



better masks'를 주제로, 최승원 학생은 'colorimetric sensor strips for platelet activation monitoring with whole blood'를 주제로 연구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각자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해 연구팀에서 주신 논문과 해당 학교에 요청하여 접근 권한을 받은 후 직접 찾아본 논문을 공부하며 정리했다.

매주 금요일에 회의가 있는 랩에 참여했는데, 연수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회의 자리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 팀 멤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 Q.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랩 건물에 처음 들어가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건물 자체가 크기도 하고, 영화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수식 같은 것도 많이 적혀 있었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보였기 때문에 대단한 랩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던 것 같다.

#### ▲해외연수 프로그램

##### Q. 추후 다른 해외 연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은?

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 등에서는 연구보다는 임상 쪽으로 갈 것 같다.

해외로 연수를 가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의료와 시스템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와 치료방식이나 치료하는 병 자체도 다른 경우가 있고 인종적인 차이가 있기도 해서 생각보다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외 연수는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의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 Q. 울산의대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좋다. 우선 지원금을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웬만한 연수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선발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비행기 서류나 invitation letter 등 증빙 서류를 잘 갖춰 두면 학교 측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 같다. 그리고 학사학생팀이나 교수님께 연락드리면 친절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료 관련 프로그램을 잘 찾아서 연락 드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 Q. 해외 연수에 도전하고 싶은 울산의대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해외 연수는 사실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교수님들이나 부모님 등 주변 지인분들께 여쭤보면서 기회를 찾아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수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느낀 점이 다른데, 엄청난 프로

그램에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갔다 오고 나니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미래에 도움이 되거나, 의료와 관련되거나,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 등 어떤 목적이든 간에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변에 물어보면서 잘 찾아보기를 바란다.

마음에 딱 드는 게 없더라도 주변인이 추천해준다면 최대한 많이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학생 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남고, 실제로 일하기보다는 부담 없이 배우면서 물어보기도 좋기 때문에 추천한다.

또, 해외연수에 가게 되면 해당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많이 느껴보길 바란다.

해외에 1~2달 동안 나가 있는 것은 여행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그러므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해외봉사 후기

길지 않은 방학 기간이지만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진행된 서울아산병원 해외 봉사에 참여한 권민성(의학과 3학년), 김도은(의학과 2학년), 염지은(의학과 1학년), 이준영(의예과 2학년) 학생을 통해 후기를 들어보았다.

##### Q. 키르기스스탄에서 봉사했던 장소는?

**준영:** 진료지는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해 있었고 컨테이너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전에 다녀온 네팔이나 그리스 봉사 때의 봉사지보다는 훨씬 깔끔했다고 들었다.

다만 본인이 일했던 약국 쪽은 컨테이너가 좀 부실해서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바닥이 움푹 주저앉는 일을 겪기도 했다. 수도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에 건물도 많았고, 환자분들의 접근성도 용이했다.

**도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국립 병원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마련해 주었다. 지금까지 갔던 봉사지 중에 가장



시설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들었다. 실제로도 굉장히 깔끔했고, 환자분들 대기 장소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비슈케크는 수도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굉장히 유럽풍이고 위험한 분위기는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맛있는 식당도 많고 좋았다.

#### Q.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맡은 역할은?

**지은:** 저의 경우 예진과에 배정받았고, 주된 업무는 환자이송과 환자 대기시간 안내였다.

예진에 계신 선생님들이 환자의 C.C (chief complaint, 주소)를 파악하여 과를 배정해주시면 환자분들을 각 과에 맞게 안내하는 일이었다. 환자가 너무 밀리지 않도록, 그리고 혼선이 없도록 중앙 제어를 잘 해야 하는 일이었다. 또 다른 과에서 검사실로 환자를 보내야 되거나, 다른 진료과로 이동이 필요할 때 등 모든 순간에 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하루는 다른 업무를 맡기도 했는데 앞서 환자이송팀을 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안과 진료를 위해 찾아왔다.

그만큼 안과수술 특히 백내장 수술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다. 이 수술장에서 수술 전, 환자분들께 산동제와 국소마취 점안액을 넣는 일도 맡았다.

백내장 환자들을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수술 준비가 다 되었는지 검사하고 동공 반사를 직접 해보는 신기한 경험이 되었다.

**민성:** 저의 경우 이준영 학생과 함께 약제팀에서 업무 보조를 했다. 사실 의료진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까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또 환자분들을 안내해드리고 하는 중요한 업무였다.

특히나 가장 마지막에 모든 환자들이 거쳐가는 곳인만큼 누락되는 환자는 없는지, 누락되는 처방은 없는지 확인해야 했고, 진료 종료 시점이 되면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해서 상당히 바빴던 것 같다.

#### Q. 해외봉사에 도전하고 싶은 우리 의대 학생들에게

**준영:** 키르기스스탄 해외봉사 학생봉사자 모집 공지가 뜨는 순간 지원하고자 마음먹었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우고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방학 일수도 짧고 연구일정과 동아리활동, 시험일정을 모두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해외봉사를 다녀올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개월 전부터 조율하여 해외봉사활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체력적으로는 무척이나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환자와의 추억, 그리고 함께 고생한 봉사단과의 추억인 것 같다.

학생 봉사자들끼리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평소 뵙기 힘든 교수님, 약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한층 더 성장하는 예비 의료인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울산의대 학우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응원한다.

**지은:** 처음 가는 의료봉사, 처음 가는 장소, 처음보는 사람들이었던 만큼 걱정이 앞섰던 것이 생각이 난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너무도 좋은 시간, 너무도 좋은 경험, 너무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또, 오히려 낯선 국가였기에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문화를 배웠고,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다.

봉사를 다녀오기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외봉사를 한번 가는 사람은 없다. 아예 안 가보거나 계속 가거나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난다.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 말을 이렇게 몸소 느끼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다녀와보니 진부하지만 “가장 솔직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봉사의 첫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지원하게 된 이 해외봉사 프로그램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다녀오고 나니 또 가고 싶다는 욕심이,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우리 의대 학생들은 저처럼 아산병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부 프로그램 중 따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더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다녀오시는 것을, 교수님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위의 말의 뜻을 꼭 한 번 직접 느껴봤으면 좋겠다.

**도은:** 학생 신분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산병원 해외봉사처럼 대규모의 의료진과 인력이 가는 봉사는 매우 드물 것이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도전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봉사를 통하여 다양한 세계를 접하여 자기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같이 간 선생님들과도



친해지며 많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등 여러분들과의 봉사 후 뒤풀이도 참 재밌었다. “단체활동이 재밌을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첫 순간이었다고 한 간호사 선생님도 있었다.

타 학교 학생들은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우리 의대 학생이라면 꼭 가보기를 바란다.

**민성:**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보다도 해외라서 낯설기도 하고, 또 의료 봉사라는 점에서도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환자들, 열악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확실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열악해서 거의 진료를 보기 어렵다고 한다. 마지막 날에는 장애인분들 특히 청각 장애인 분들 진료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인상 깊었다.



향후 우리 의대의 의료봉사 및 연수와 관련된 변화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이다.

▶ 11페이지에 계속

**인터뷰 그 후 학생기자 본과 2학년 서다경, 황지원**



본과2 서다경 학생기자

우리에게 흔한 전공지식인데, 콘텐츠의 관점에선 의학이 참신하고 이목을 끄는 요소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한 결과 나답게 즐거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에선 큰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내가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에 진심을 담았고, 그 진심이 사회적 관심과 기여로 이어졌다는 뜻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기뻤다.

진솔한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을 나누어 주신 우창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본과2 황지원 학생기자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 우창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유튜브와 의사로서의 일 모두를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는 의사 선배님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의대에 입학한 후 택할 수 있는 진로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의사로 일하면서 다른 꿈도 이루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보다 열린 시각으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미국으로 활동무대 옮기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 필요…사전 준비 시 더 좋은 성과도 가능

“찬란한 젊은 시절을 즐기고 많은 추억을 만들자”



우리 의대 졸업생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인정을 받고 있다.  
이에 졸업생들 중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을 통해 현황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등을 들어보았다.

## Q. 간단한 본인 소개

울산의대를 2004년에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턴, 병리과 레지던트 및 펠로우 과정을 수료하면서 울산의대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및 공중보건대학 연계 연구기관인 다나 파버 암 연구소 (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2년간 대장암 연구팀에서 병리부분을 담당하였다.

이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미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 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해부병리과 (Anatomic Pathology) 레지던트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해부병리과 전문의가 되었다.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병원 (Pennsylvania Hospital)과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 (Mount Sinai Hospital)에서 각각 외과병리와 소화기계 병리 펠로우를 수료하였다.

2020년부터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에서 병리과 조교수로 3년간 병리진단 업무와 의대생 및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였다.

2023년 7월부터는 미 국립 보건원 암연구소로 돌아와 조교수에 준하는 Assistant Research Physician 및 Staff Clinician으로 병리 진단업무와 전공의 교육 및 미 국립 보건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Q. 우리 의대 졸업 후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울산의대는 정원수가 적은 만큼 동기, 선후배간 긴밀한 정보교류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졸업생이 아산재단 산하의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과 협진이 많은 병원업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가 수월했다.

제가 서울아산병원 인턴으로 들어갈 때에도 전국 의과대학의 수석 차석 졸업생들이 서울아산병원으로 몰렸던 기억이 난다. 한국 최대이자 최고의 병원인 아산재단 산하 병원들에서 이미 의과대학 과정부터 수준 높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하고 넉넉한 장학제도와 해외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울산의대가 인재양성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단 재정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법조계, 산업계, 그리고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Q. 후배들이 의대 생활 중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를 업으로 선택한 이상 은퇴하는 순간까지 계속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고력을 학생 때부터 길러야 한다.

임상에서 실제 케이스를 보다 보면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럴 때는 새로운 것을 빨리 습득하는 유연성과, 지식과 기술을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사고력이 의사의 실력을 판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의사라도 어느 시점부터 최신 논문과 경향을 읽는 것을 그만두고 안주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고령의

나이가 무색하게 새로운 것을 계속 습득하고,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의사도 있다.

또한 몇 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지도하다 보면 시킨 일만 하고 자신을 교수의 보조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수와 같은 깊이로 케이스를 파악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학생들과 전공의들도 보았다.

어느 쪽이 의료사회에 더 기여하고 더 크게 성장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Q. 미국에서 의대 교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택을 한 계기와 준비 과정**

의대생이었던 때부터 한번쯤은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고, 마침 미국 의사고시 (USMLE)에 대한 정보를 선배에게 들은 후 방학기간에 공부하여 step 1을 통과했다.

시작하는 김에 'ECFMG Certificate'까지는 받자고 마음먹고 어쩌다 보니 step 2, step 3까지 통과했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 영어와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병리레지던트, 펠로우 수련기간 동안 외국에서 방문하는 교수님들을 보조하는 일을 자주 맡았다.

이 영향이었는지 펠로우 2년차 무렵에 병원에서 제공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발탁되어 보스턴 다나 파버 암연구소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다.

2년 연수기간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재미교포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았던 해외연수 지원금을 반납하고 미국 병리 전공의 과정에 들어갔다.

이처럼 미국에서 의사 경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게 된 첫 계기는 반쯤은 상황에 의한 것이었지만, 영어와 'ECFMG Certificate' 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찾아온 기회를 신속히 잡을 수 있었다.

지원시 3~4개의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지도해 주셨던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의 추천서와 한국 및 미국 병리학계의 지도자적 위치에 계셨던 (故) 노재윤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 레지던트 매칭 (matching)에 참여하였다.

약 80개의 병리과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4개의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 국립 보건원 암연구소 병리과 전공의 프로그램에 매칭되었다.

비교적 높은 USMLE 점수와 명망있는 추천인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 국립 보건원은 리서치 경력을 중요시했는데 한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와 서울아산병원 여러 과에서 진행하던 연구에 가리지 않고 참여하여 꽤 많은 논문을 출판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수련한 병리과가 마침 미국에서 외국 의대 졸업생이

들어가기 쉬운 과정 중에 하나였고 적절한 시기에 미국에서 결혼으로 영주권까지 해결한 것은 운이었지만, 한국에서 성실히 수련하고 부지런히 박사학위와 논문 등의 이력을 쌓지 않았더라면 과연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이로 인해 무엇이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물론,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한국 전공의 수련이나 박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대 졸업 후 곧바로 미국 전공의 매칭에 성공하는 사례도 많다. 다만, 미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미리 목표를 세우고 준비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Q. 미국 의대 교수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영어로 자유롭게, 아니면 적어도 많이 긴장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미국행을 막는 큰 장벽 하나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심리적인 이점 외에도 영어는 미국 생활의 당연한 기본이며, 인터뷰와 적절한 업무수행에도 필수적이다.

두번째로는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일찍부터 수집해야 한다.

한국 출신 미국 의사선생님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도 있고, 국제커뮤니티도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알아야 할 정보는 크게 USMLE, 전공의 매칭, 미국 비자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USMLE 준비는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에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시험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

전공의 매칭은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전공의 지원 시스템이므로 반드시 전 과정을 잘 숙지하고, 추천서를 누구에게 받을지, 전공의 지원 전에 미국 병원 경험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을 경우 J1 비자 또는 H1 비자로 전공의 수련을 해야 하는데 비자에 따라 수련 후 체류자격 유지 조건이 달라지고 직장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 전공과에 따라 특정 비자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행과 전공과를 선택하기 전에 미국 비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필수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 수련하고 정착하려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이다.

짧은 기간이라도 미국 생활을 직접 해보거나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한국의 안정적인 기반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서의 불리함

과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동기와 의지가 없다면 그 과정이 매우 힘들 수 있다.

#### Q. 한국과 비교하여 미국 의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문의로서 선택하는 경력은 대학병원 교수 외에도 다양한데, 미국에서는 어떤 길을 택하든 서열을 매기지 않고 당사자들도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지도교수의 입김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종합적인 조건을 우선시한다.

아이비리그 대학병원에서 오퍼를 받았지만 더 높은 연봉과 시 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 개인병원으로 간 펠로우도 보았고, 매우 훌륭한 스펙을 가진 의사라도 자신의 가족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한적하고 인기 없는 지역에 취직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유명 대학 병원이나 암센터 등이 생각보다 장벽이 높지 않고, 스펙보다는 그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으면 외국인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또한 일과 시간관리에 개인의 자율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임상업무와 교육,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이 일괄적이 기 보다는 각자 자유롭게 정하고 그에 맞게 연봉을 조정해서 계약하기도 한다.

자신의 현재 연봉과 업무량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승진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그리고 한국처럼 정년퇴직이 강제되지 않아서 본인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양쪽의 의료시스템을 경험해 본 바, 나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인력, 장비, 기술 등이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

미국 교수직의 장점으로 더 나은 연구, 교육환경 등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몇몇 병원을 제외하면 한국에 비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굳이 장점으로 꼽지는 않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직장문화 만큼은 한국보다 미국 쪽을 선호 한다.

인종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들 간의 문제는 일어난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사회제도와 문화가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개인의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직장에서도 뒷담화를 많이 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뒷담화가 대부분 일과 관련된 것들이고, 사생활이나 외모적인 뒷담화는 매우 교양 없다 생각하고 꺼리는 분위기이다. 직장내 갑질, 따돌림, 언어폭력, 과격한 행동 등은 보기 드물었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필요한 요건은 오직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일 뿐, 일 외적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는 업무 외적인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느낀다.

#### Q. 기타 하고 싶은 얘기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아 힘들겠지만 찬란한 젊은 시절을 즐기고 많은 추억을 만들라고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 힘든 시기가 오면 그 시절의 추억이 많은 위안이 된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습관과 기반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국 생활이나 미국 의사가 되는 길에 대해 더 궁금한 후배분들은 연락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경험담을 나누어 드릴 수 있다.

▶ 19페이지에 계속

####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장건강

인체 내에는 많은 수의 미생물이 분포하며, 특히 위장관 내에는 다양한 종의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즉 dysbiosis가 다양한 증상 및 질환과 연관되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성 위장관 질환인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 장내 미생물 분포의 변화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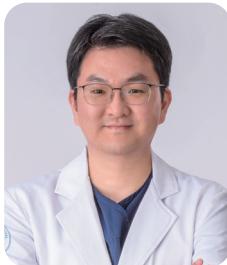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익한 균을 공급하

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이 dysbiosis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대로 유해한 균을 억제하는 항생제 사용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rifaximin의 사용은 여러 임상지침 및 연구들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rifaximin의 투여로 구체적으로 장내 미생물 분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나아가 dysbiosis가 호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 장내미생물의 불균형: Dysbiosis 개념부터 치료까지



울산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이승범 교수

위장관 내에는 5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phylum (문)과 500–1000개 이상의 species (종)의 세균이 대략  $10^{14}$  개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내미생물의 불균형 'dysbiosis'란?

이들은 장관 내부의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숙주인 인간의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 조성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dysbiosi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특정 균주의 감소, △유해한 균주의 과증식,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 과민성 장증후군 'dysbiosis'와 관련성은?

다양한 질환 중 특히 가능성 장질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복통, 복부 불쾌감, 배변 횟수 및 형태 변화 등의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성 질환이며, 유병률은 조사에 따라 인구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심각한 질환은 아니더라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 ▲과민성 장증후군, dysbiosis와 관련성 확인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dysbiosis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 대조군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군 사이에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2017년 발표된 체계적 논문 고찰에 따르면, 중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10개의 연구 메타분석 결과 건강 대조군에 비하여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군에서 Bifidobacteria와 Lactobacillus의 감소 및 Escherichia Coli와 Enterobacter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Bifidobacteria와 Lactobacillus의 균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국내에서 발표된 또 다른 종설에서도 확인되며, 과민성 장증후군에 dysbiosis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 ▲과민성 장증후군과 소장 세균 과증식 연관성 확인

과민성 장증후군과 dysbiosis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전으로 '소장 세균 과증식'이 제시되어 왔다.

이는 소장 내 세균의 수가 증가하거나 비정상적인 종류의 세균 양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에 의한 염증 발생, 점막의 미세구조 변화, 운동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하여 흡수장애, 내독소혈증, 면역 반응 이상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증상 및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약 30–85%에서 소장 세균 과증식이 동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둘 중 어느 질병이 선행하는 유발 인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과민성 장증후군과 소장 세균 과증식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만큼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 'dysbiosis' 치료

장내 미생물 분포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dysbiosis라고 가정한다면, 불균형의 회복, 그 중에서도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균주의 과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중 rifaximin은 반합성의 rifamycin 근간 항생제이며, 위장관 흡수가 매우 적으면서도 항균 효과가 좋아서, 그럼 양성 및 음성 균주, 호기성 및 혐기성균에 모두 작용한다.

2021년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에서는 설사 우세형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rifaximin을 사용해 볼 수 있음을 중등도의 근거 수준에서 권고하고 있다.

2011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3상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비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군에서 2주간의 rifaximin 복용은 위약 복용군에 비하여 과민성 장증후군 관련 증상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후 같은 연구 그룹에서 최초 2주간 투여 후 12주차에 rifaximin 반복 투여를 2주간 추가한 연구에서도 재발된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에 대하여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dysbiosis가 항생제 투여에 의해 호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8페이지에 계속

# 박덕우 · 김남국 교수 제2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박덕우 교수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교실  
김남국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왕규창) 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이사 사장 오동욱)이 후원하는 '제 2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가 발표 됐다.

우리 의대 내과학교실 박덕우 (서울 아산병원) 교수가 임상의학상, 융합 의학교실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교수 가 중개의학상을 수상했다.

▲ 박덕우 교수는 심혈관질환 임상 적 근거를 확인해 국내 심장분야 의 학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인 업적 을 인정받아 임상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덕우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의 관 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정기 스트레 스 기능검사 여부에 따른 주요 심장 사건 발생률 또는 사망률을 비교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두 환자군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정기 검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상적 근거를 최 초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전 세계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될 예정이며, 실제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는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에 게재

됐다.

▲ 김남국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변수가 많은 응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확인하고, 국내 데이터 를 이용해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인공지능 진단 부분에서 환자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아 중개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남국 교수는 보통 사용하는 특정질환을 학습하는 방법 대신 정상인의 뇌 CT데이터를 학습해 질환을 찾아내는 이상치 검출 (Anomaly Detection) 방법으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중증도 분류 (triage)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상치 검출 방법 적용시 응급상황 환자의 다양한 질환을 더욱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었으며, 판독 시간 등도 유의하게 단축되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제 2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연구들 모두 국내 의료환경 개선은 물론 세계적으로 미충족 수요로 남아있던 난제들의 해법을 제시한 우수한 연구성과들로, 의학계에 혁신을 더하고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들이다."라며, "앞으로도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한 국내 의과학자들을 발굴해 공로를 기리고,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고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3학년도 의과대학 발전세미나 개최

우리 의대가 지난 8월 25일 워커힐호텔 아트홀에서 약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승후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현안 발표 및 토론 (교육장 이전, LCME 교육과정의 경과와 미래, 기초교실 직제 개편), ▲의과대학 현안 발표 및 토론 (울산 의대-UNIST HST program, 서울아산병원-UNIST Compaas 협동 연구, 입시환경변화, 학업 미성취/부적응 학생관리) 등으로 진행되었다.



# 2024년 임상실습 과정의 주요 변화

의학과 2학년 / 3학년 2개학년이 주요 과목 임상실습을 동시에 합니다



교육부학장 이세원

## 배경

LCME도입과 울산 교육장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2023학번부터는 모든 이론 교육은 울산에서 진행됩니다.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 교육을 주요 과목 위주로 조기에 마치고 병원 임상실습을 의학과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형태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이론 교육을 울산에서 시행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임상 실습을 위한 우수한 환경을 갖춘 우리 대학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년도	의예1	의예2	의학1	의학2	의학3	의학4
2022년도	울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2023년도	울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2024년도	울산	울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2025년도	울산	울산	울산	서울	서울	서울
2026년도	울산	울산	울산	임상	서울	서울

  기존 교육 과정

  LCME 교육 과정

그림 1. 연도별, 학년별 LCME 교육과정 진행에 따른 교육장의 위치. 2021학번 이 예과 2학년부터 LCME 교과과정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되었으며 의학과 2학년이 되는 2024년부터 임상 실습을 둘게 된다 (회색 부분은 LCME로 교육 받는 학년). 2023학번부터는 3년 동안 울산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되며 2026년 임상 실습을 위해 서울로 오게 된다.

## LCME 교과 과정에 따른 학년별 주된 변화

기존에는 이론 교육을 의학과 1, 2학년에 통합과정을 통해 했다면, LCME에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이론 교육을 의학과 1학년에서 M1~M4의 통합과정을 통해 마치고, 의학과2학년부터는 임상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1학번은 이미 M1~M4의 과정을 의학과 1학년 2023학년도에 이수하였고, 내년 2024년에 주요 과목의 임상실습을 의학과 2학년에 받게 됩니다. (24페이지 그림2 참고)

본과 2학년부터 시작하는 임상 실습은 다음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 임상 조기 노출을 통한 임상 실습의 강화
- 교육장 이전에 따른 울산과 서울에서 적절한 교육 부담 안배
- 중요 임상 과목의 실습을 조기에 이수함으로써 선택 탐구 기간 동안 해외 실습 참여에 유리함
- CPX / OSCE 조기 노출 및 강화

### 기존 교육과정과 LCME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당분간은 선후배 두 개 학년이 같은 임상 실습을 들게 됩니다.

LCME에서 주요 임상 실습이 의학과 2학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기존 교육과정의 2020학번 의학과 3학년과, 새로운 LCME 교육과정의 의학과 2학년이, 동시에 주요 과 임상실습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기존 교육 과정과 새 교육 과정이 동시에 운영되는 당분간은 각 해마다 두 개 학년이 실습에서 겹치게 됩니다.

년도	의예1	의예2	의학1	의학2	의학3	의학4
2022년도	교양	기초 입문	통합과정 (기존)	통합과정 (기존)	임상실습 (Major)	임상실습 (Minor)
2023년도	교양	기초 입문	통합과정 (M1~M4)	통합과정 (기존)	임상실습 (Major)	임상실습 (Minor)
2024년도	교양, UNIST	기초 입문	통합과정 (M1~M4)	임상실습 (Major)	임상실습 (Major)	임상실습 (Minor)
2025년도	교양, UNIST	기초 입문	통합과정 (M1~M4)	임상실습 (Major)	임상실습 (M5~7), 선택과정	임상실습 (Minor)
2026년도	교양, UNIST	기초 입문	통합과정 (M1~M4)	임상실습 (Major)	임상실습 (M5~7), 선택과정	임상실습 (Sub I, M8)

그림 3. LCME 교과 과정 진행에 따른 각 연도별 학년별 교과 과정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학년 별 교과 과정이 겹치는 해가 생기게 됩니다.

- ① 2023년: 통합과정 겹침 (의학1, 의학2)
- ② 2024년: Major 실습 겹침 (의학 2, 의학 3)
- ③ 2025년: Minor 실습 겹침 (의학 3, 의학 4)
- ④ 2026년부터 모두 새 교육과정

2024년 올해는 Major 실습이 본2 / 본3이 동시에 80명이 나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각 과와 상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각 임상과는 과거 보다 약간 더 긴 기간 (18 → 24주) 동안, 실습 조마다 조금 더 많은 수 (현재의 1.4~2배)의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1학기 동안에는 내과 실습을 마치고 조금 일찍 여름 방학을 하게 되며, 2학기에는 외산소정 실습을 의학과 2학년과 3학년이 번갈아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총 24주의 외산소정 실습 기간 동안 과별로 중간에 한 term은 쉬게 되어 총 18주 실습을 진행했다면, 2024년에는 쉬는 기간 없이 24주간 실습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 과별 임상실습 주요 일정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2/본3실습 과목		2023년 (현행)	2024년 (안)
내과	실습기간	총 14주 *내과총론 4주 + 분과실습 8주 + 울산/강릉실습 1주 + 평가 1주 *필수분과: 심장내과 (1주), 호흡기내과 (1주), 소화기내과 (2주)	총 13주 (재평가 기간 1주 포함) *내과총론 2주 + 분과실습 10주 + 평가 1주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분과별 1주 4~5명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분과별 1주 8명 실습

외과	실습기간	총 18주, 각 조별 6주 (3개조 × 6주/조) *울산/강릉 파견 1주 포함	총 24주, 각 조별 6주 (2개학년 × 2개조 × 6주/조) *울산/강릉 파견 1주 포함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3개조로 실습 운영하며, 조별 약 12~13명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학년별 2개조로 운영하며, 조별 약 20명 실습
소아청소년과	실습기간	총 18주, 각 조별 6주 (3개조 × 6주/조) *울산/강릉 파견 1주 포함	총 20주, 각 조별 5주* (2개학년 × 2개조 × 5주/조, 각 조별 1주는 응급의학과 실습) *울산/강릉 파견 없음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3개조로 실습 운영하며, 조별 약 12~13명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학년별 2개조로 운영하며, 조별 약 20명 실습
산부인과	실습기간	총 18주, 각 조별 6주 (3개조 × 6주/조) *울산/강릉 파견 1주 포함	총 24주, 각 조별 6주 (2개학년 × 2개조 × 6주/조) *울산/강릉 파견 1주 포함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3개조로 실습 운영하며, 조별 약 12~13명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학년별 2개조로 운영하며, 조별 약 20명 실습
정신건강의학과	실습기간	총 18주, 각 조별 3주 (6개조 × 3주/조) *실습 기간 중 CPX 시험, 별도 CPX 교육 일정	총 24주, 각 조별 3주 (2개학년 × 4개조 × 3주/조) *실습 기간 중 CPX 시험, 별도 CPX 교육 일정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6개조로 실습 운영하며, 조별 약 6~7명이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 학년별 4개조로 운영하며 조별 10명이 실습
응급의학과	실습기간	내과 분과 실습 기간 (10주) 중 1주	소아과 실습 기간 (24주) 중 1주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1주 최대 4명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1주 최대 4명 실습
가정의학과	실습기간	총 18주, 각 조별 3주 (6개조 × 3주/조) *1차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실습 1주 포함	총 24주, 각 조별 3주 (2개학년 × 4개조 × 3주/조) *1차 의료기관 및 보건소 실습 1주 포함
	실습인원	약 40명 (의학과 3학년) *6개조로 실습 운영하며, 조별 약 6~7명이 실습	약 80명 (의학과 2, 3학년) * 학년별 4개조로 운영하며 조별 10명이 실습

\*응급의학과 실습의 적절한 인원 배정을 위해 내과 14주 기간에서 소아청소년과 24주 기간 중 1주씩 하는 것으로 조정. 소아청소년 기존 실습 중 울산/강릉 파견 일정을 활용함.

### 해당 교실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 2개 학년의 임상 실습은 의학교육학센터와 해당 교실에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장 이전과 LCME 시행이라는 두 큰 사안이 겹치면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하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각 교실 주임 교수님과 교육 담당 간사님, 의학교육학 센터, 그리고 학사 행정팀에 감사 드립니다. 의과대학은 향후 진행될 임상 실습의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교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LCME 및 기존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 의학과 3, 4학년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3년 11~2024년 2월 학사일정

의예과 1학년	UNIST 교환프로그램
의예과 2학년	11월 – 질병과 치료, 12월 – 질병과 치료, 학습성과평가Ⅰ, 1월 – 졸업성과평가Ⅰ, 2월 – 동계방학
의학과 1학년	11월 – M4, 12월 – M4, 학습성과평가Ⅱ, 의학연구실습과정, 1월 – 졸업성과평가Ⅱ, 2월 – 동계방학
의학과 2학년	11월 – 종합강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학, 직업환경의학, 역학, 의학의 역사와 의료윤리, 법의학), ICM2, 12월 – ICM2, 학습성과평가Ⅲ, 의학연구실습과정, 1, 2월 – 동계방학
의학과 3학년	11, 12월 –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임상실습 / 임상수행평가(12월), 1, 2월 – 특성화선택실습 / 동계방학
의학과 4학년	11, 12, 1, 2월 – 졸업시험 및 국가고시 필기시험

2024학년도 의과대학 교육과정(안)

## 그림 2. 2024학년도 본2~본4 임상 실습 배치도

##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약정)서」 작성 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li><li>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li><li>자동 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li></ul>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의과대학 장학금: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li><li>의과대학 위임: 의과대학 관련 기타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li><li>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li></ul>

##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별첨2 「아산사회복지대단 서울아산병원 후원 (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li><li>무통장 입금: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li><li>자동 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li></ul>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후원 용도: 병원발전기금 선택 (v)</li><li>세부 내용: 지정 선택 (v) 후 아래 세부내용을 선택하여 기입 울산의대 발전기금 / 울산의대 교육연구기금 (LCME)</li></ul>

## 기부 및 후원 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약정서 및 기부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의과대학 교무기획팀 이정현 02-3010-4214, jaylee0131@ulsan.ac.kr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의과대학은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은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진료) 활동을 선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1) 교육 –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한다.
  - 2) 연구 – 의학을 발전시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 3) 봉사 – ① 참된 진료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  
② 지역, 국가, 국제적 건강 및 보건의료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교육목표:** 소통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 졸업성과:**
- ① 전문직업성
  - ② 교육과 연구
  - ③ 소통과 협력
  - ④ 자기 개발
  - ⑤ 환자 진료 \*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울산의대의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졸업생은 기본 수준의 진료 역량,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을 위한 역량, 졸업 후 교육과 평생학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략:**

- ①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 ② 공식 교육과정 뿐 아니라 비공식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
- ③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을 강조하여 졸업 후 교육에 대비한다.
- ④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 평생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 ⑤ 교육, 연구, 진료 전반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강조한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 기본 수준의 진료역량:

6년간의 기본의학교육 (Basic Medical Education)을 마친 후,

- ① 다양한 의료의 영역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전문영역에 대한 졸업 후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졸업 후 단계에 따라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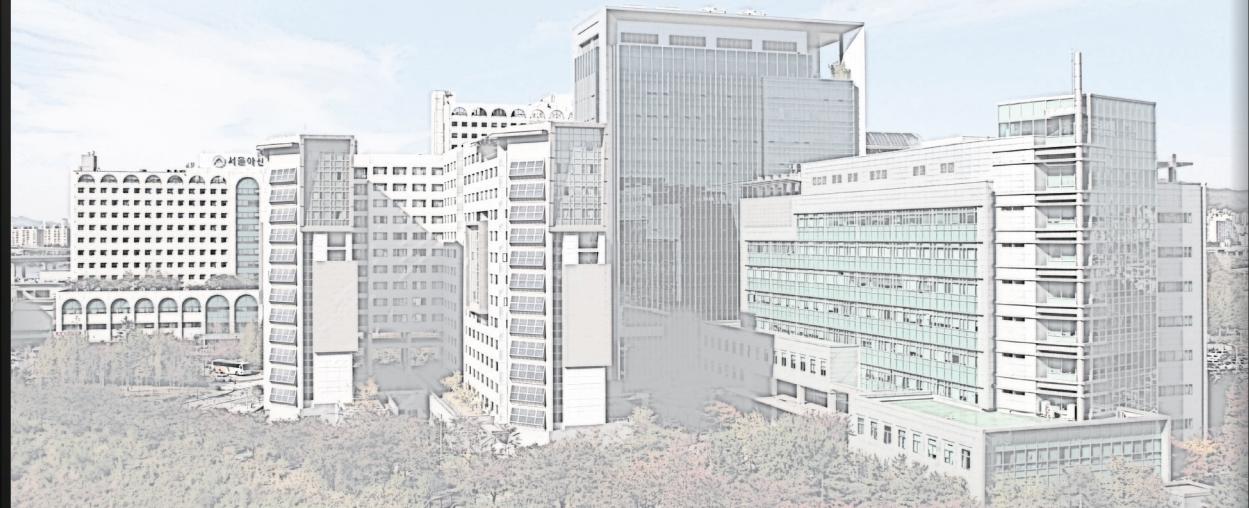
\* 사회적 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 연구, 진료방침:

- 1) 교육 – ① 학생 때부터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이슈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하여 그 가치를 인지하게 한다.  
② 사회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교육한다.
- 2) 연구 – ①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배양한다.
- 3) 진료 – 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진료 경험을 제공한다.  
② 지역, 국가 건강 및 보건의료 이슈에 참여하고 국제 보건의료 이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의학 분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각 임상 분과, 의료관리, 의학연구, 의학교육,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래의 조건을 갖춘다.

- ① 임상 분과, 의료관리, 의학연구, 의학교육, 인문사회 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 ② 다양한 경험, 자기주도학습능력, 평생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책임감, 타분야에 대한 이해와 존중, 윤리적 감수성, 이타심, 공감 등을 함양한다.





미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교육  
목적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

교육  
목표

소통 · 윤리 · 창의

소통과 협력

교육과 연구



자기개발



전문 직업성



진료



[ 졸업 성과 ]